“지난 100일 성과 바탕으로 더 크게 보답”

민주 한병도 의원, 원내대표 연임 도전… “지방선거 승리가 최우선… 국익 · 민생 저해시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00일간의 입법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로 증명한 준비된 원내대표”를 자임하며, 제3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0일은 매 순간이 시험이었지만,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 성과로 응답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취임 직후 단기간 내 주요 입법을 처리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2차 종합특검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을 잇달아 통과시켰으며,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00일 동안 국정과제 법안 81건을 포함해 총 29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 협치를 통해 대미투자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으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집권 여당의 역할을 “신속한 민생입법과 단호한 개혁입법을 통해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은 검증된 리더십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향후 과제로는 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지역 공약을 입법과 예산으로 구체화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히 “상임위별 입법 진행 상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전방위적 입법 추진으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협상하되, 국익과 민생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협치와 원칙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과 의원들의 성공”이라며 “성과 중심의 원내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0일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달 6일 실시되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4선)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박정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한편, 국회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 일정 조율을 맡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안에서 의원단을 실제로 움직이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만호 기자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합동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이원택 도지사 후보, 민주 광역단체장 후보자 간담회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 타 지역 후보자들과 ‘원팀’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후보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합동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전북 발전 전략과 관련해 “새만금 SOC를 조기에 완결하고 피지컬 AI 수도를 조성하겠다”며 “케이컬처와 케이푸드 산업 육성, 농생명식품 바이오 분야 특화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원팀(One-Team)’ 체제로 결집해 민생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이 참석해 민주당 ‘원팀’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잘하고 유능한 도지사”라며 “위축된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체감경제 실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북의 기초 경제력(펀더멘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 성장 동력인 새만금을 신속하게 완성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속도 있는 시정·시민 체감 행정 실현”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시정운영 방향 구상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조지훈 후보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경선 승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날 조 후보는 출입기자들과 가진 소규모 간담회에서 “오랜 시간의 좌절과 준비 끝에 얻은 소중한 결과인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16년 만에 선출직 경선을 통과한 만큼 시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특히 지난 시간 동안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시장 당선 후 시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조 후보는 ‘속도’와 ‘시민 체감’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현 시정 기조에 대해서는 계승과 보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발전의 방향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발사업이 시민의 실질적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주·완주, 전주·김제 등 어떤 형태든 통합 파트너 지역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위성만으로는 통합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전략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종합경기장 등 현안에 대해 조 후보는 “이미 행정이 줄 수 있는 혜택은 충분히 제공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지연된다면 이는 사업 주체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기존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도시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연 확장보다 기존 사업의 정상 추진에 무게를 뒀다. 그는 “신규 신도시 개발은 당분간 속도를 조절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사업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양가 상승과 지역 간 주거 품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탄소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인접 지역과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전주 산업단지가 반드시 전주시에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완주·김제 등과 연계한 공동 산업단지 조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부시장과 동문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기반 특화거리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기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충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당선 후 공직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후보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긴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강도 높은 업무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일하고 싶어 하는 공직자들이 많다”며 조직 분위기 혁신 의지도 드러냈다.

조 후보는 끝으로 “경선 이후는 경쟁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이라며 “이번 경선에 임한 우범기 후보와 국주영은 후보 등 당내 인사들과 힘을 모아 ‘용광로 캠프’를 구성하고 반드시 본선 승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자산 주권 기반 구조 전환을”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성수 예비후보가 전북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더 이상 정치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산 주권’ 기반의 지역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복지는 균형을 이룰 때 도민의 삶이 안정된다”며 “현재 전북은 정치 중심의 기형적 구조로 인해 경제와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만 비대해진 구조에서는 도민의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정치 중심 구조와 정책 경쟁 부재를 지목하고, 경제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북 자산 기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경제·복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보상 프로그램 도입 △전북 4대 권역 재설계 및 새만금·재생에너지 등 핵심 자산 확보 △STO(토큰증권)를 활용한 자산 금융화 및 도민 참여형 투자 구조 구축 △사회복지 자산화 및 자생적 복지 기반 조성 △전북펀드 7조 원 규모 조성을 통한 기업 직접 투자 확대 △공공 카지노 도입을 통한 중장기 투자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만호 기자

신동이 전주시의원 후보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이 청년 정치인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신동이 후보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41, 1층(투썸플레이스 동전주점)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지역 주민들과의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

이번 개소식은 우아1·2동, 호성동에 ‘신동이 나타났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알리고, 우아1·2동과 호성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신동이 후보는 우아1·2동과 호성동을 중심으로 전주역을 관광관문으로 대전환하고, 피지컬 AI 밸리 유치를 통해 미래신업 기반을 구축하며, 아중호수를 야간경제 특구로 조성하는 정책을 통해 관광·산업·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전주의 새로운 중심축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아1·2동과 호성동이 전주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주시의원에 도전한다.

/이만호 기자

노을대교 건설 현장 찾은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3일 노을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핵심 SOC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혁신당 도당 “민주 임실군수 경선,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

전북 임실군수 선거를 둘러싼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와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3일 대변인단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 정치가 낳은 구조적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3선 군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수 선거는 당초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공정 경쟁이 기대됐으나, 실제 경선은 불법과 혼탁 양상이 짙어지며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가 주민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고,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개표를 보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통신사 기지국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여론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지역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당은 “전북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기득권 정치의 구조를 깨고, 정책과 인물 중심의 새로운 정치로 임실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광역의원 공천 확정자 발표

전주 · 정읍 · 남원 · 장수 등 확정 후보자 총 7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오후 6시 광역의원 공천 확정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주시 제4선거구에는 장연국, 제5선거구에는 송재영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정읍시에서는 제1선거구 임승식, 제2선거구 염영선 후보가 공천을 받았으며, 남원시 제1선거구 윤지흥, 제2선거구 임종명 후보도 명단에 포함됐다. 장수군에서는 장정복 후보가 공천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100%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 각 선거구별 최종 후보자가 결정됐다.

확정된 후보자들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